

# 10스토리

2017 그린피스 캠페인 하이라이트



GREENPEACE

### 한국,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다

정부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폐지는 물론, 노후된 석탄발전소 폐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지구를 위한 IT

그린피스는 IT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제작 방식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삼성에게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3 플라스틱 없는 삶을 위해

그린피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근절을 위해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탈핵을 위해 시민들이 뭉치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위해 559명의 시민들과 함께 '560 국민소송단'을 결성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 5

### 석탄, No! 태양광, Yes!

2017년은 석탄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활발히 일어난 해입니다. 3월, 그린피스는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브레이크 프리' 행진을 진행했으며, 석탄 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으로 거짓 홍보하는 그린워시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2017 그린피스 캠페인 하이라이트

# 10

## STORIES

### 10



### 시민의 목소리가 승리하다

그린피스는 거대 펄프 기업인 레졸루트가 지속불가능한 파괴적 방식으로 벌목을 벌이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레졸루트는 시민단체들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의 시민들이 이에 대해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레졸루트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팜유

그린피스는 초대형 글로벌 은행인 HSBC에게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팜유 기업들에게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결국 HSBC는 우림을 파괴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프리카에 희망을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아프리카의 바다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조사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무차별 벌목이 벌어지고 있는 콩고분지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7 '사기' 대신 '만들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류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소비 대신 재활용, 재사용을 권하는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새로 사는 대신 직접 만들어보자는 '뭔가 만들어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북극 바다를 지키다

그린피스는 북극 바다에서 석유시추를 위한 탄성파 공기총 발포로 고통 받던 북극 이누이트 원주민들과 힘을 합쳐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2년간 발포를 중단시켰습니다.



\*일러스트 임은영

# 오늘의 행동이

# 내일을 결정합니다



2002년 그린피스 홍콩사무소에 들어와 건강한 식품 캠페인, 산림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키평청(KT)**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그린피스 홍콩사무소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후원자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국제 그린피스의 핵심 사무소로 성장했습니다. 홍콩사무소를 설립하고 2000년까지 함께 일한 앤 딩월(Anne Dingwall)과, 현재의 사무총장 썬이평청(KT)과 함께 동아시아 지부의 성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KT** 앤, 스태프 전체를 대표해 은퇴를 축하 드립니다. 그린피스에서 일하면서 홍콩, 구소련, 브라질,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기여 하셨는데요, 홍콩사무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앤** 고마워요, KT. 이렇게 동아시아 지부가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홍콩은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홍콩사무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1996년 1월부터 개소 준비를 시작했는데, 처음 사무소는 제 아파트였고 집에 있던 마작 테이블에 플라스틱 의자를 썼어요. 동료들도 7명뿐이었죠. 그렇게 준비해서 1997년 발렌타인데이에 공식적으로 사무소를 열었지요.

**KT** 1997년에는 대만, 1999년에는 부산에서 핵폐기물 투기에 반대하며 현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평화적직접행동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서울과 타이베이사무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나요?

**앤** 한국과 타이베이사무소 개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1997년 9월에,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국과 대만의 시민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평화적직접행동을 펼치고 정부와 IAEA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결국 대만 정부는 북한에 핵폐기물을 보내는 것을 취소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환경 캠페인이 무엇인지 이해해 나갔습니다.

**KT**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기후변화나 삼림파괴, 해양자원 고갈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

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높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린피스의 역할 인데요, 그래서 서울과 타이베이사무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의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가 불법 어업을 하던 대만 선박을 막아 세웠는데요, 당시 타이베이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언론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2010년에 동아시아 지부가 탄생한 뒤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캠페인을 펼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는 동아시아 지부가 이렇게 수많은 환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장 최근에 개소한 서울사무소에서든 현재 기후에너지, 해양보호, IT 등 다양한 캠페인들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벌써 의미있는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 냈지요.

**앤** 정말 동감해요. 2001년에 아마존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조용한 학생이었던 KT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를 이끌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던지, 환경범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는 '그린피스의 정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KT, 그린피스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앞으로 20년 동안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KT**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린피스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기 위해 쉼 없이 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환경감시선 중 하나가 일주일 안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캠페인팀 리더였는데, 불과 며칠 안에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서울사무소가 개소하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마리오 다마토는 “나는 아예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성공적으로 '원전 비상' 캠페인을 시작하고 무사히 오픈보트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신념과 행동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과 동료 단체들, 후원자님들을 비롯해 그린피스와 함께 '좋은 삶'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Nick Cobbing / Greenpeace

캠페이너로 활동을 시작해, 홍콩과 아마존 사무소는 물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에 모스크바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그린피스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린피스 국제본부에서 보안 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앤 딩월**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안 자문



# 시민이 만들어 가는 에너지 전환 이제 시작입니다

글 장다울 기후에너지 캠페인 팀장



작년 한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1년 10월 설립 초기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 기후에너지 캠페인에 집중했습니다.

# 1

지난 5년간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수많은 시민들이 그린피스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정부, 기업,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에 천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석탄으로부터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린피스가 전문성을 지니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서명에 참여하고, 환경감시선을 방문해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가능함을 알아가고, 때로는 그린피스와 함께 평화적직접행동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 6월 19일, 우리나라 최초로 영구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원전과 석탄을 줄여나가며, 대안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린피스 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나와 이웃의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수십 년 간 원전과 석탄 중심 시스템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세력들은 에너지 전환을 계속해서 문제삼고 정치 쟁점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빠른 결과에서도 보듯듯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맡겨 놓아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문제제기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린피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변화를 발판 삼아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과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Paul Langrock / Greenpeace

# IT기업 여러분, 재생가능에너지 하세요!

글 이인성 IT 캠페이너



세종대왕



세련된 박스에 포장되어 나오는 매끈한 IT기기들. 하지만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조 공정의 상당 부분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희소금속을 포함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광산 노동자들은 때론 보호장비도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습니다.

## 2

IT기기 제조사들은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특하면 디자인과 기능 일부를 바꿔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소비자가 기존 제품을 수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오래 사용하기 힘들도록 교묘하게 디자인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지구가 입게 됩니다.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채굴하는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이 오염됩니다.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변화까지 가속화 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작년 한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IT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유한한 지구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이 순환하는 모델,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기업이 찾는 '혁신'이 있다고 말이죠.

특히 작년 10월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전자제조사 17곳의 친환경 성적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자원소비절감, 유해화학물질 제거'라는 세 분야를 중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전자기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이 겨우 1%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지난 11월부터 삼성전자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을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죠. 그리고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오는 8월에 재생가능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기업이라면 명확한 비전을 제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그만큼 명백하고 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그리고 금융권이 앞다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전자제조회사이자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요구가 기업의 변화에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만이 이 굵든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함께해주세요. ReThink IT, 우리가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Jung-gaun Park / Greenpeace

# 플라스틱 없는 삶을 위해

글 김지우 해양보호 캠페이너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지구 전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7년 서울사무소에서는 생활 속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3

2016년, 그린피스가 미세 플라스틱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2만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2017년 1월에 드디어 식약처에서 일부 화장품에서 고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작년 7월부터 제조 단계에서 금지됐고, 올해 7월부터는 이미 생산된 제품들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우리의 바다를 위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변화입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케냐에서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부터 비닐봉투의 제조,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투 금지법입니다.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근원부터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또 버려지는지, 대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며 플라스틱 없는 삶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작년은 후원자님들, 또 시민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9월에는 해운대 모래사장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고래 모양의 전시장을 설치하고, 바닷가를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버리고 있는 플라스틱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시민들은 자신이 1년 동안 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10월 말에는 소래습지에서 후원자 및 지지자님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후원자 류준열 님은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승선했는데요, 대만의 야시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18년에도 '플라스틱 제로' 도전에 함께해주세요!

© Mandy Barker / Greenpeace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560 국민소송단'

글 김미경 다이내믹 이슈 팀장



# 4

2017년은 신고리 5, 6호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은 단순히 원전 2기 취소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살 권리를 요구해 온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2017년 탈핵·탈석탄·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첫 시도였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잠시 중지되었던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와는 별개로 '560 국민소송단'의 국민 모두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떤 발전소를 짓든지 지켜야 할 절차와 법규가 있고, 건설될 모든 발전소는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원전 건설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100% 안전한 원전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탈핵이 되기 전까지 운영 중인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원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안위는 이처럼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건설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560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과정에서 약 20개의 위법하다 판단되는 쟁점들을 들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어느덧 1심 재판 막바지에 다다른 이번 소송은 원안위 책임 강화, 독립성 확보 및 원전 사고 시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건설허가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승소할 경우,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사법부에서 명령한 위법사항을 시정, 보완한 뒤 건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3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소송단 여러분을 직접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 탈핵 에너지 전환이 더욱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560 국민소송단'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주세요.

© Daeyoonlin / Greenpeace



석탄 줄이기

# 탈석탄으로 향하는 세계의 움직임

글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5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기록적인 한파를 몰고 온 기후변화. 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을 위해 그린피스는 지구 곳곳에서 탈석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현재 석탄 퇴출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석탄연료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 28개 국가와 지방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연료 퇴출을 약속했고, 석탄사업을 추진하던 기업 1,675개 중 1/4이 석탄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약 813개의 투자기관이 더 이상 석탄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11월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퇴출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연합인 'Powering Past Coal Alliance'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석탄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2017년은 동아시아 지부 석탄 줄이기 캠페인에 있어 뜻 깊은 해입니다. 수 년 간 꾸준히 중국에서 진행해 온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2013년 중국정부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중국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 33%나 줄어들었지요.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7년 3월, 당진에서 열린 '브레이크 프라: 석탄 그만'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그만'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당진에코 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운영 중 석탄발전소의 환경설비 강화', '신규 석탄발전소의 원칙적 진입 금지' 등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5년 한국에서 시작된 '석탄 줄이기 캠페인'을 후원자님들이 꾸준히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린피스는 지난 11월,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이라고 거짓 홍보하는 석탄발전 회사들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의 친환경 홍보를 규제할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국이 하루 빨리 깨끗한 미래를 위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 노래를 되찾은 북극 고래들

글 편집실



기억하시나요? 2016년, 그린피스는 캐나다 북극 클라이드 강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북극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 탐사용 사용되는 탄성파 공기총 발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북극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낱알이 파헤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 6

캐나다 북극 클라이드 강가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 원주민들 역시 탄성파 공기총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1,000여 명에 불과한 마을 주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에 의존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인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를 통해 식량을 충당합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 이 지구 북쪽 끝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북극 바다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성파 공기총 발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며,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누이트 원주민들과 함께 석유 기업들의 북극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고 국립 에너지위원회가 승인한 5년간의 탄성파 공기총 발포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7월, 캐나다 대법원은 클라이드 강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북극 생태계뿐 아니라 캐나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기에 더 의미가 큼니다.

2017년 말, 그린피스는 북극뿐 아니라 남극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1984년 남극에서의 광물 채굴 및 훼손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남극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고래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며 남극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남극은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황제펭귄, 아델리펭귄, 바다표범, 대왕고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아주 특수하고 지극히 깨끗한 남극의 환경에 맞춰 살아온 동물들은 수온이나 해빙 면적의 변화, 먹이 사슬의 교란 등 작은 변화에도 큰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극은 극심한 기후변화와 오염, 남획 때문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새빙선 '아틱 선라이즈'호는 얼음 아래 숨겨져 있던 남극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남극 바다로 3개월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남극해양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Will Rose / Greenpeace



# 희망의 아프리카

글 편집실



비록 국가와 경계선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지구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뿐입니다. 공동의 자원인 해양 생태계와 숲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높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는 작년 아프리카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 8

서아프리카의 바다는 해양 자원이 풍부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UNFD)는 바로 이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남획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자호는 작년 3월 서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해, 현지 어선들과 힘을 합쳐 총 17건의 불법 어업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온 어선들은 불법 어망을 사용하고 어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 '해양 파괴의 대가'를 통해 이런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인해 주변의 지역사회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중국과 유럽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바다뿐 아니라 열대 우림 역시 심각한 파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목재와 팜유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콩고 열대 우림은 사정없이 베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는 콩고 우림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사이, 에스페란자호는 중앙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단체들, 관료들과 지역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콩고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콩고 우림은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끼리와 고릴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는 과학자들과 콩고 우림 탐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억톤에 달하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이탄습지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산불이 나거나 파괴되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3년간 전세계에서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 '공고를 위해 춤을'과 '소원 나무'를 진행했는데, 전 세계 시민들은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춤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에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

글 편집실



© Jurnasyanto Sukarno / Greenpeace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인도네시아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홍콩사무소에서 진행한 산림보호 캠페인은 그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 9

HSBC가 인도네시아의 산림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그린피스 홍콩사무소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홍콩만의 특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팜유와 제지 기업들은 엄청난 넓이의 인도네시아의 우림을 베어내고 불을 질러 개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의 화재가 수개월간 진화되지 않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보르네오 오랑우탄의 서식지 역시 심각하게 파괴되어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해,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사무소에서는 산불 방지팀을 구성했습니다. 산불 방지팀은 진화 작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래 HSBC는 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 약속'을 위반하고, 삼림 벌채를 자행하고 있는 팜유 기업 6곳에 투자해 1,400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1월, 그린피스는 '더러운 은행들(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삼림 파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 27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HSBC에게 당장 숲을 파괴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서명을 홍콩 몽콕의 HSBC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커다란 승리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HSBC가 삼림 벌채 및 이탄습지를 파괴하는 기업들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4월 세계 최대의 팜유 유통업체인 IOI그룹의 '지속가능한 팜유 및 인권보호 정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IOI는 외부 독립 단체들의 모니터링을 받아들이고, 팜유 공급업체가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NGO들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향후 HSBC와 IOI가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소중한 숲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승리했습니다

글 편집실



2017년 5월, 캐나다의 거대 벌목 기업인 레졸루트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수천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나다 북방 침엽수림은 북미산 순록인 카리부의 서식지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린피스는 레졸루트가 이곳에서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벌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레졸루트가 이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10

이런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부릅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소송을 걸어 겁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대기업은 소송에 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과학자, 비영리 단체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처음으로 레졸루트가 등장한 것은 2003년입니다. 그린피스는 레졸루트(당시 아비티비보워터)에 파괴적인 벌목 방식을 개선하고 남은 삼림 지역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년간 진행된 캠페인 끝에 2010년, 아비티비보워터를 비롯한 21개의 기업들, 8개의 환경단체들이 캐나다 산림보호를 위한 캐나다 침엽수림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레졸루트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전 세계의 시민들이 레졸루트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설가, 언론인, 시인, 각본가 등 작가들도 동참했습니다. 맨부커 상을 수상한 마거릿 애트우드, 안 마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린피스와 함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우리의 숲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숲을 파괴하는 기업이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드디어 우리의 '말할 권리'가 승리했습니다! 존 티거 지방 법원 판사는 "피고(그린피스)의 발표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나 다양한 관점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그린피스의 간행물들은 과학적 연구나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런 종류의 과학적인 의견 불일치는 법정이 아니라 학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 Fred Dolt / Greenpeace

## 2017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후원자님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해였습니다. 환경을 위해 가까이 행동에 나서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신 멋진 후원자님들과 만날 수 있어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뜻 깊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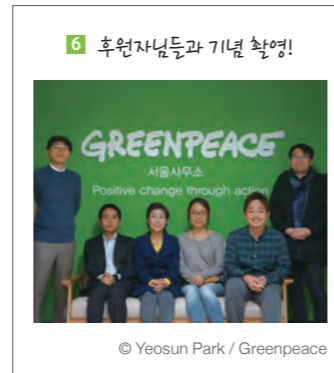
> 1 해운대 바닷가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제로' 체험. 아이들도 함께 "플라스틱 그만"을 외쳤습니다.

> 4, 5 소래포구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쓰레기 줍기 행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2 7월,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인 제니퍼 모건의 이화여자대학교 강연 현장. 많은 후원자님들이 환경문제와 그린피스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 6 후원자님들은 그린피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더 나은 그린피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신 후원자님들과 기념 촬영!

> 3 그린피스와 함께 '석탄 out'을 외치며 2017년을 열어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남극 수호대가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땅, 남극. 남극은 펭귄과 고래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해양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남극은 계속해서 파괴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작년 초, 남극의 아델리 펭귄 4만 마리 중 단 두 마리의 아기 펭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부모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추위와 굶주림으로 아기 펭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크릴 어업 역시 남극 동물들의 식량 자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호주에서 열리는 남극해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18배 면적에 달하는 남극 웨델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린피스는 이를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해저탐사선을 이용하여 남극 해저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증액해 주시면, 남극보호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진행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증액 신청 방법**

- 오른쪽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주세요.
- 그린피스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추가하시고 사진을 전송해주세요. 그린피스와 플러스친구를 맺으시려면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그린피스 후원자용 전화 (02-3144-1997)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증액을 통해 월 3만 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분께는 캠페인 스티커와 냉장고 자석을 보내드리며, 캠페이너와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후원자 정보**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주소 \_\_\_\_\_

**증액 신청서**

현재 월 정기 후원금에서 \_\_\_\_\_ 원을 증액하여 후원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며 약정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후원자 \_\_\_\_\_ (서명 또는 인)

## Cover Story

그린피스 미국사무소의 해양보호 캠페인 리더인 수잔 록하트 박사와 잠수함 조종사인 존 호체버가 잠수함에 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대성을 알리기 위해 해저 잠수함으로 플라스틱 오염 샘플링을 비롯한 과학 연구를 위해 3개월간 남극 대륙 탐험을 진행합니다.

표지 사진 © Christian Åslund / Greenpeace

## 10 스토리 2017 그린피스 캠페인 하이라이트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http://www.indnp.com)

# GREENPEACE

✉ [sukr@greenpeace.org](mailto:su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http://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http://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